



- 연중 제26주일 · 이민의 날 - 2019년 9월 29일 · 다해

천주교 의정부교구(<http://ucatholic.or.kr>) · 발행인 이기현 · 편집 홍보국 · 제819호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의정부동)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850-1433-5(홍보국) · 팩스 850-1575 · 이메일 jubo@uca.or.kr

대전의 집



설립 1999년 11월 15일 전화 사무실 031-850-1422 주소 경기도 양주시 삼송동 171-2

제1독서 아모 6,1ㄱㄴ,4-7

화답송 시편 146(145),6ㄷ-7,8-9ㄱ,9ㄴㄷ-10ㄱㄴ(◎)1ㄴ

◎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 주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 주시네. ◎
-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
-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꺾어 버리시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시온아, 네 하느님이 대대로 다스리신다. ◎

제2독서 1티모 6,11ㄱㄷ-16

복음 환호송 2코린 8,9 참조

◎ 알렐루야.

-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우리도 그 가난으로 부유해지게 하셨네. ◎

복음 루카 16,19-31

영성체송 시편 119(118),49-50 참조

주님,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저는 그 말씀에 희망을 두었나이다. 당신 말씀 고통 속에서도 위로가 되나이다.

“Somewhere over the rainbow...”



김형국 요셉 신부
지금동 부주임

얼마 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갠 후 해질 무렵 문득 하늘을 보았습니다. 무지개가 보였습니다. 오묘한 빛이 물들어 있는 무지개는, 하늘에 색색의 수를 놓은 것처럼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닌, 두 개의 아름다운 쌍무지개였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아름답고 선명한 무지개는 난생 처음이었기에, 그저 멍하니 무지개를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1939년의 영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도로시가 잔잔하게 부르던 노래, 바로 ‘Over The Rainbow’ 였습니다. 주인공인 도로시가 집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라며 불렀던 노랫말이 떠올랐습니다.

“무지개 너머 저 하늘 높이 어딘가에 하늘은 파랑고, 마음으로 꿈꾸면 정말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무지개 너머 어딘가에 파랑새들이 하늘을 날아다녀요. 그러나 왜, 왜 나라고 날 수 없겠어요.”라는 이 아름다운 가사처럼, 누구나 언젠가 찾아 올 ‘무지개 너머의 세상’을 바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 주위에도 많은 이민자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꿈꿔온 세상을 찾으려 고국을 떠나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여기서 삶의 터전을 이루고 사는 이들, 혹은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 훗날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이 꿈꿔 온 삶

을 만들고자 하는 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들을 기억하며, 더욱 깊은 관심을 보이하고자 선포한 ‘이민의 날’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많은 이민자들이 하루 하루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부자’와 ‘가난한 라자로’에 대해서 이야기 하십니다. 그러면서 죽은 후에 부자의 삶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또한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분명 우리는 하느님을 뵈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꿈꿔왔던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애야, 너는 살아 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의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루카 16,25)라는 오늘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해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복음이 주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위의 ‘가난한 라자로’를 찾아, 진정한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그들과 함께 ‘무지개 너머 저 하늘 높은 곳’에 있는 하늘나라를 꿈꿔야 할 것입니다. ☸



하늘에 보내는 편지

안송이 효주아네스 / 정발산 성당



사랑하는 엄마, 엄마가 떠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네. 그 사이 나는 결혼도 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려 재형이와 알콩 달콩 잘 살고 있어. 걱정하던 수훈이도 새로 가게도 오픈하고 아빠는 아직 힘들어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엄마의 빈자리를 잘 이겨내는 것 같아.

엄마는 하늘에서 어때? 하늘나라는 따뜻할까, 아님 우리가 사는 이곳처럼 더울까? 천국에는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 너무너무 궁금한 게 많다. 사실, 엄마가 하늘나라 가던 날이 아직도 나는 생생한데, 또 어떤 날 가끔은 엄마가 우리 곁에 없다는 사실이 이상할 때도 있어. 맨날 엄마가 놀리는 울음 많고 바보천치인 나는 엄마 생각만으로 눈물이 고여서 더 생각하지 않으려 노력했던 것 같아.

엄마가 가고 나서 진짜 많은 기억이 나를 돌아보게 했는데.. 어떤 날은 우리가 처음 만난 날, 또 어떤 날은 나랑 수훈이가 세례를 받아서 우리 가족 모두 갈비집에서 식사하던 날, 다른 날은 재형이를 엄마에게 병원에서 처음 소개시켜 주던 날,

참 여러 날 중에서도 그래도 제일 기억에 무수히 재생되는 날은 엄마가 우리에게 처음으로 너무 아파서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다고 한 그날인 것 같아. 병을 알게 되고 투병하면서 한 번도 우리에게 약한 모습, 아픈 모습 보이기 싫어했던 엄마가 처음으로 우리에게 진심을 꼭꼭 담아 말한 날이었잖아. 수훈이랑 넘어가지도 않던 저녁을 꾸역꾸역 먹고 들어온 그 때, 엄마에게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너무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

엄마가 마지막을 준비하는 걸 알면서도 막바지 결혼준비에 너무 바쁘고 새 학기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늘 사람들을 만나고 일한다고 핑계 댈 내 자신이 미워서 많이 슬펐어. 엄마가 아프기 시작한 순간부터 늘 성당에서 기도할 때 엄마의 마지막이 다가오면 담담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이생에서 아픈 엄마가 하늘나라에서 행복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었거든? 하느님 옆에서 천국의 달콤함을 누릴거고 언젠간 우리 만날 거니까 아쉬워하거나 슬퍼하지 않게 해 달라고 그렇게 항상 기도했었는데 막상 내 앞에서 거친 숨을 쉬는 엄마를 보면서 하느님께 보내기 싫고 내 결혼까지만 보고 갔으면 좋겠고, 그것조차 안 된다면 이번 주라도,



오늘이라도 우리 곁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아직도 참 나는 성숙하지 못한 어린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어.

마지막을 앞두고 가족들이랑 전화 통화하며 숙모가 나에게 "송이야, 엄마 종부성사 받았니? 혹 받지 않았다면 오늘 꼭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말씀에 울며불며 신부님께 전화 드렸을 때 평소 냉담하고 몸이 나아져야 하느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거 같다고 늘 고사하던 엄마도 고개를 끄덕이며 하고 싶다고 했었잖아. 뭔가 그 순간 엄마도 엄마 나름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 같아 마음이 참 이상했어. 그렇게 우리 가족 다 같이 모여 신부님을 맞이했을 때, 엄마는 무슨 생각을 했어? 나는 신부님의 기도 끝에 힘겹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대답하는 엄마를 보며 하느님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믿던 그분에 대해서 말이야. 이 아픔을 왜 나에게 주시는 걸까. 평범하게 행복할 수는 없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거든. 처음 엄마가 암을 발견했을 때에.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엄마가 입원했던 그때 하루 하루가 많이 힘들었어.

근데 막상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 모두 모인 그 시간엔 가끔 해오던 생각과는 반대로 마음 안에서 희미하게 '감사란 단어를 봤어.

그래도 너무 많이 더 아프지 않게 마음 써주시는 것에, 항상 바쁜 우리 가족이 모두 모일 수 있는 시간에

이렇게 마지막을 함께 준비할 수 있는 것에, 그 소중한 순간에 하느님 안에서 엄마를 보낼 수 있어서 말이야. 처음으로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많이 슬펐지만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병자성사의 은총 덕분인지 엄마가 마지막일 거라 걱정했던 그 밤을 넘기고 아침을 맞이하고 떠날 수 있었잖아. 엄마가 그 밤에 홀로 떠나지 않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따사로운 봄 낮에 엄마를 보내줄 수 있어서... 아빠 손을 꼭 잡고 눈을 감는 엄마의 마지막 얼굴은 다시 볼 순 없겠지만 아마 내 기억에 영원하겠지.

엄마, 나는 잘 지내고 있어. 아직도 엄마가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나긴 하지만 하늘에서 잘 지내고 있을 엄마를 생각하며 기도해. 이제 원망하기보단 감사하며 살아가려고 해. 엄마도 하늘에서 함께 우리 지켜봐줘.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만나자. 그때 그동안 즐거웠던 천국 얘기 많이 들려줘야해. 사랑해. 엄마 ☺

책임감과 연대와 연민으로

이주민과 난민과 더불어 살아가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105차 세계 이민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신앙인으로 어떻게 식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생각하고 싶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구었던 사회 문제 가운데 하나는 단연 ‘난민’ 문제였습니다. 제주에 들어온 예멘 난민들을 향하여 쏟아진 관심과 현실적인 질문과 걱정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난민’은 우리와는 거리가 먼 남의 나라 일로만 생각해 왔기에, 처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난민’에 관한 문제는 많은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분명 우리나라도 많은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민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다문화 사회’입니다. 거리를 지나다 보면 쉽게 외국인을 만날 수 있고, 그들과 대화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삶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면, 그런 현실이나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많아지고 있고, 다문화 가정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들과 더불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도 1990년대부터 지난해, 제주 예멘 난민까지 ‘난민’ 문제는 계속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외국인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주 예멘 난민을 보면서 이들이 한국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오해했고, 이들을 받아들이면 사회가 큰 혼란과 어려움에 빠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 문제를 정치와 사회 이념의 목적으로 이용하여 자기편에 유리한 쪽으로 끌어가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이주민’, ‘난민’은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맞이해야 합니까?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권고합니까?

“비록 거기에서 당장 실질적인 이득을 전혀 얻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고통받는 그리스도를 알아 뵈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이민은 제게 특별한 과제를 줍니다. 탁월한 복음 선포자이시며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자신을 특별히 가장 작은 이들과 동일시하십니다.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상처받기 쉬운 이들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복음의 기쁨』, 210.209항). 교황께서 이렇게 이주민과 난민에게 깊은 관

심과 사랑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도 헤로데의 박해를 피하여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이집트로 떠나야만 했던 난민이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가정의 모습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주변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이주민과 난민에게 더 깊은 이해와 애정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교황에 즉위하시자마자 람페두사의 난민들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그때 교황께서는 “네 형제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을 등지고 있는 우리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다가가 함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이자 신앙의 표현입니다. 이런 면에서 교황님의 지향에 따라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네 가지 기본 실천 방안인 ‘환대하기, 보호하기, 증진하기, 통합하기’를 늘 마음에 새겨 실천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18년, UN에서 전 세계 164개국이 동의한 ‘안전하고 질서 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글로벌 콤팩트’가 채택되었고, 교황께서는 신앙인의 실천

적 사랑이 온 세계의 연대 속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이 글로벌 콤팩트를 따라 국제 사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 나라를 떠난 모든 사람에 대한 책임감과 연대와 연민을 가지고 함께 이

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이 지향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프란치스코, 삼종기도, 2018. 12. 16.).

이주민과 난민의 문제는 더 이상 몇몇 국가나 사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글로벌 콤팩트’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이는 인류 공통의 문제이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랑’의 소명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시신 아름다운 ‘연민’의 마음으로 난민과 이민들과 ‘연대’해야 합니다. 불의한 처지에 놓여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행동으로 다가서기를 청합니다.

2019년 9월 29일, 제105차 세계 이민의 날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정신철 주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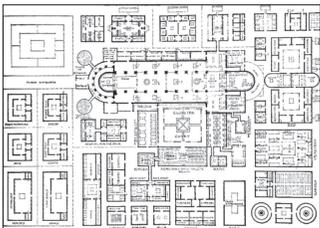
대성당 천장을 톨로 올린다

제2 클뤼니 수도원 성당

강한수 가톨릭 신부 | 민락동 성당 주임, 건축신학연구소

지난 회에 클뤼니 수도원의 개혁으로 교회가 암흑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클뤼니 개혁은 그레고리오 개혁으로 이어졌고, 성직 서임권 문제로 교황과 황제가 대립하게 되었으며, 결국 카노사의 굴욕(1077년) 사건을 거쳐 보름스 정교조약(1122년)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이번 회에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하에 건축된 클뤼니 수도원의 성당 건축에 대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수도원은 세상이 어둠의 긴 터널에 빠져들 때면, 교회의 얼굴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되살아나도록 자신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로마제국의 멸망 이후 카롤링거 왕조 이전까지의 5~7세기 서유럽의 침체에 교회와 신앙과 영성에 숨을 불어넣었던 것도 누르시아의 성 베네딕토가 세운 베네딕토 수도회였습니다(529년). 이후 베네딕토회 규칙서를 따르는 수도원들이 서유럽 전역에 생겨났고, 카롤링거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서는 더욱 발전하게 되는데, 앞에서 다룬 생리쿠에 수도원과 아래 그림의 성 갈로 수도원이 대표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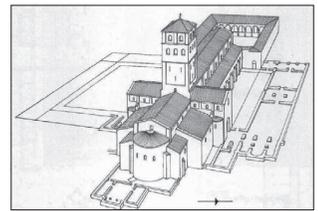
성 갈로 수도원 배치도

성 갈로 수도원은 서양 건축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상적인 수도원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남아 있지 않

지만 820년으로 추정되는 양피지에 그려진 배치도는, 성 갈로 수도원이 단순히 기도하고 노동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의 작은 도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수도원 안에는 대성당은 물론이고, 학교, 농업과 목축업의 농

장, 양조장과 목공소, 병원과 제약소, 그리고 묘지에 이르기까지 삶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원은 수도 공동체의 순박한 공간이 아니라 도시와도 같은 종합적 공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급자족의 이상적 공동체는 결국 “기도하며 일하라”라는 베네딕토회 정신과 조금씩 멀어져 가면서, 세속 군주와 결탁하는 이상한 공동체로 전락하였고, 결국 또 다른 수도원의 등장을 예고한 것입니다.

최초의 클뤼니 수도원이 자리한 부르고뉴 지방은 북부의 노르망디와 함께 초기 프랑스의 로마네스크 건축을 이끄는 중심이었습니다. 지



제2 클뤼니 수도원 성당

리적으로 부르고뉴는 지중해의 석조 건축술과 롬바르디아의 조적술의 영향을 받아서, 바실리카 양식의 성당에 석조 볼트 천장을 얹는 실험을 하기에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클뤼니 수도원 성당이 그 대표적인 경우였는데, 그곳은 개혁의 상징이었고 성지순례의 중요한 거점이었기에, 웅장하면서도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필요로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에 지었던 목조 평천장의 성당 대신 석조 볼트 천장을 가진 제2 클뤼니 성당이 증축되었습니다. 이로써 천장과 벽이 일체의 석구조를 이루며 ‘수직’이라는 중세의 중요한 건축요소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바실리카의 긴 네이브에 십자 모양으로 교차하는 트란sept가 추가되었고, 네이브 양쪽에 아일이 하나씩 붙은 3랑식으로 지어졌습니다. 이스트엔드는 방사형 소성당 없이 성가대석과 앵스를 중심으로 지어졌고, 성가대석 옆에 직사각형의 소성당이 추가되었으며, 천장은 네이브뿐만 아니라, 아일, 트란sept, 소성당 모두 석조 배럴 볼트로 시공되었습니다. 이러한 제2 클뤼니 성당의 일체성과 수직성의 구조는 부르고뉴 지방의 다른 성당들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더 멀리는 고딕 성당을 준비시켜 주었습니다. ☸



미사 · 피정 ▶▶

교구 성령쇄신 봉사회 철야기도회(미사와 함께)

일시: 매주(금) 21:10~01:20 마두동 성당(10/4)
주제: 찬양과 치유기도회
문의: 교구 성령기도회 010-8729-0025

행주 성당 성모 신심 미사(전대사)

일시: 10/5(토) 11시(미사, 목주기도)
매월 첫 토요일 11시에 있습니다.

미사와 함께하는 목주기도 100단

일시: 10/2(수) 13시~16:30
미사: 김영철 베드로 신부(교구 담당사제)
장소: 능곡성당
※성인 호칭기도와 함께하는 기도회
일시: 10/9(수) 14시~15:30 장소: 동일
문의: 교구 성령기도회 010-8729-0025

첫 토요일 신심 미사

일시: 10/5(토) 09:30~12시, 10시 미사
장소: 호평동 성당(남양주시 호평동 556번지)
문의: 010-7131-2033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의정부지부

8지구 영성피정/금촌성당

일시: 10/1(화) 12:30~16:30
문의: 010-3495-8522
강의.미사: 신동규 다미안마리아 신부(파티
마 세계사도직 한국 부분부장)

이한택주교님과 함께하는 첫토신심피정

일시, 장소: 10/5 파티마 평화의 성당(점심
제공)10시 켈기도, 11시·13시 강의, 고해성
사, 14시 미사

한Ti아고 가는 길(성지순례길)

일시: 10/17(목)10:30~10/18(금)15:30(1박2일)
11/14(목) 09:50~17:30(1일)
장소: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피정의집
참가비: 각 6만5천 원, 2만 원
[대구은행 504-10-102896-6
(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접수후 입금
문의: 054-971-0722, 010-9877-4739

마리아사제 운동 첫 토요일 신심미사와 체나콜로

일시: 10/5(토) 10시 미사, 11시 기도
장소: 지곡동 성당(동부), 후곡성당(서부)
준비물: 성모님 메시지 합본, 목주
문의: 체나콜로 봉사회 010-9272-4660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피정 및 교육

예수마음기도: 11/2~3(1박2일),
10/16~20(4박5일) /이냐시오영신수련:
10/18~20(2박3일) /에니어그램내적여정:
10/25~27, 11/29~12/1, 예수마음배움터
개방의 날: 10/28(10시~17시)
장소: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파주)
신청 및 문의: 031-946-2337/2338

신·구약 성경 완독피정 (8박9일)

일시: 10/26(토)~11/3(일), 48만 원
11/15(금)~23(토), 48만 원
문의: 010-3340-0201 황성도미니코 피정의 집

2박3일 무료 치유 피정

일시: 10/11(금) 18시~10/13(주일) 15시
장소: 청주교구성령쇄신봉사회(무료숙식)
문의: 010-4400-1344, 043-213-9103

예수회 후원회 금요침묵피정

주제/강사: 하느님의 평화는 그 평화가 아니
다: 가톨릭 사회 영성 1 /박상훈 신부
일시/장소: 10/4(금) 10시~13시 /예수회
센터(서울 마포구 서강대길 19)
문의: 02-3276-7777 /무료, 미사봉헌

예수수도회 청년주말피정

(영신수련 기반으로 한 침묵피정)
일시: 10/12(토) 15시~ 13(일) 16시
하루피정 10/6(일) 10~4시
대상: 미혼 젊은이(33세이하) *선착순
장소: 서울 오류동 수녀원 010-9746-1585

예수성심전교수도회 성모신심미사

일시: 10/5(토) 11시, 예수성심의 어머니성당
전세버스대절-서울역 1,4호선 14번출구(9
시출발), 일산동구청주차장앞(9:30출발),
인천주안역북광장(9시출발), 동암역 농협앞
(9:05출발), 10/2 까지 예약필수
문의: 02-379-8081, 010-4550-6955

제주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모든일정은 왕복항공권 포함해서 접수가능)
기간: 10/6~9(추자도), 10/17~19,
10/27~29, 11/3~6(추자도), 11/11~13,
11/24~27(추자도) /연말연시: 12/29~1/1
(일몰,일출,한라산눈꽃산행)
접수: 02-773-1463, 064-756-6009

꽃동네 개인피정 안내

일시: 10/11~13, 10/25~27
대상: 조용히 기도 속에 머물고 싶은 모든 분.
독방, 자유피정, 강의, 면담
꽃동네 기도회, 꽃동네 순례(원하는 분)
피정비: 2박3일 12만 원
장소: 꽃동네 사랑의 영성원 피정집
문의: 043-879-8500, 010-8880-8286



교육 · 모집 ▶▶

파주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직원 모집

분야: 사회재활교사(사회복지사), 사무직(회
계,행정) 문의: 031-850-1482
참조: www.caritasdaegun.or.kr
(사회복지법인 대건카리타스)

가좌동성당 피아트성가대 반주자 모집

자격: 가톨릭 신자로서 피아노 및 오르간 전공자
지원서류: 이력서(서류 심사 후 면접)
제출방법: jawoon001@naver.com
마감: 10월 말
문의: 피아트성가대 단장 010-6234-4309

백송노인주간보호센터 어르신 모집(일산복지관)

대상: 장기요양등급판정어르신(3,4,5등급)
기간: 수시 /장소: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문의: 031-975-1344
www.ilsanwelfare.or.kr 공지사항 참조

혼인재발견(르투루바이)주말

혼인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부부들을 위한
2박3일의 주말 프로그램
배우자와의 갈등과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일시: 10/25~10/27
장소: 서울 등촌동 엠이만남의집
문의: 02-929-2141

2020학년도 전기 교회음악대학원 신입생 모집

모집: 석사과정(5학기) 오르간, 작곡(CCM
작곡포함), 합창지휘/ 콘서타토리와과정(4학
기) 오르간, 작곡, 합창지휘, CCM, 피아노,
성악, 관현악 /원서접수: 10/14(월)~10/25
(금) 09시~18시 /입학전형일: 11/15(금)
장소: 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충정로
역,서울역하차) 문의: 02-393-2213~5
http://songsin.catholic.ac.kr/music

2020학년도 전기 인천가톨릭대학교 대학원생 모집

접수기간: 11/5(화)~11/14(목)
 모집전공: 현대회화, 바이오메디컬아트, 3D융
 합조형, 이콘, 스테인드글라스, 교회문화재, 헬
 스케어환경디자인, 스마트콘텐츠, 간호학
 입학문의: 032-830-7015

요양보호사 모집(3교대)

기관: 모현센터노인전문요양원(경기 포천시)
 문의: 010-9795-0032

관광기도 배우기(제21차) 선착순 30명

하느님과 깊은 일치를 이루는 기도를 배우고
 싶으신 분
 일시: 10/8(화) 14시~16시(6주간)
 장소: 행주 성당 (회비무료)
 문의: 031-974-1728

평신도사도직연구소 공개 세미나

주제: 누구를 위한 누구의 교회인가: 하느님
 백성의 공동합의성(Synodalitas) 실현
 발제: 최현순 박사, 사회: 주원준 박사, 토론:
 한민택 신부 외 분야별 패널 토론
 일시: 10/19(토) 14시~18시
 장소: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3층 대강당
 주최: 서울대학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문의: 02-777-2013

서강대학교 게임&평생교육원 멀티미디어학위 입시모집

서강대학교 게임&평생교육원 멀티미디어학
 위과정(4년제) 2020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모집 분야: 게임그래픽&애니메이션, 게임기
 획, 게임프로그래밍
 모집일정: 3차-10/14~23(월~수),
 10/26(토), 10/30(수)
 수능 성적과 관계없이 고교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 지원 가능,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으로
 서강대학교 총장명의 학위(미디어공학사) 수여
 문의: 02-705-8678, 경의선 서강대역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입학사이트" 참고
<https://www.soganggame.ac.kr>

타우영성심리상담소(문의:010-3419-5604)

개인심리상담(불안,우울,분노,스트레스,관
 계&성격), 부부및가족상담, 청소년상담, 신
 앙및영성상담, 수도자심리상담전문가, 상담
 심리학사 직접상담
 장소: 일산 탄현역 5분거리

꽃동네 청년 선교학교

"나도, 꽃" 1기 모집
 일시: 1/6~1/22(16박17일)
 장소: 필리핀 마닐라, 타클로반
 문의: 043-879-0283~4, 010-5464-1265
 주최: 예수의꽃동네형제회자매회

미사반주법 및 묵상곡을 위한 오르간교육

일시: 10/7(월)부터 10주
 문의:02-338-3793
 주최: 아퀴나소르간아카데미

모현센터의원 간호사 모집

조건: 호스피스병동 3교대(기숙사 제공)
 문의: 031-536-8998(경기 포천시)

안내 · 기타 ▶▶

제2회 도시농부축제

"우리 밭에 놀러와~"
 일시: 10/12(토) 11시~16시
 장소: 양주 버들덧밭(양주2동성당 옆)
 내용: 문화마당, 체험마당, 장터마당
 (덧밭영화제-10/11(금) 19시)
 문의: 환경농촌사목위원회 031-850-1492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컵,
 장바구니 준비해주세요.

가톨릭여행사 010-5235-3533

10/21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395만 원
 11/4 멕시코 페루 아르헨티나 12일 625만 원
 11/5 이스라엘 요르단 11일 415만 원
 1/28 이탈리아 일주 13일 430만 원

가톨릭평화방송여행사 성지순례

10/31(목) 이스라엘 9일 375만 원
 11/4(월) 베트남 하노이-하롱베이 5일 125만 원
 11/4(월) 성모발현지 4개국 13일 368만 원
 11/11(월) 이탈리아 중·남부 10일 405만 원
 문의: 02-2266-1591, www.cbpcctour.co.kr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02-2281-9070

10/27 발칸반도 12일 365만 원
 11/16 이스라엘 일주 9일 375만 원
 11/22 유럽 성모발현지 13일 369만 원
 11/28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458만 원
 12/3 동부유럽 12일 350만 원

한국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10/8 스페인, 루르드, 파티마 14일 390만 원
 10/22 사도 바오로의 발자취(터키,그리스) 12일
 12/12 베트남 성모성지(다낭) 5일 130만 원
 1/09 이스라엘, 요르단 13일 380만 원
 문의: 02-722-8366(크로바여행사)

안찰라도미니 그레고리오 성가단 정기연주회

일시: 10/5(토) 16시 (전석초대)
 장소: 천주교순교성지 새남터기념성당 대성전
라파엘여행사02-778-8565

이스라엘, 요르단10일 11/18,12/3 (289만 원)
 이스라엘 9일 1/15 (299만 원)
 이태리9일 11/7(279만원) 1/21구정(299만 원)
 성모발현지13일 10/28(399만원) 2/3(389만 원)

제 55차 아일랜드 영어연수생 모집

초·중·고: 1/4~2/9(3, 5주 선택)
 가톨릭계 학교 아일랜드 학생들과 함께
 대.일반: 1/4~2/23(5, 7주)
 DCU 대학교 or ULearn 학원
 세계 각국 연수생들과 함께
 설명회: 9/29(일) 14시 명동성당내 가톨릭
 회관 2층 강당
 후원: 원죄없으신마리아 교육선교수녀회
 문의: 그린피스이엔티 02-3446-4253

	수도회명	일시	장소	문의
성 소 모 임	성골롬반외방선교회	10/6 (주일) 10시	서울 돈암동 본부	korvocation@columban.or.kr
	한국외방선교회	해외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010)8715-2846
	영원한도움수도회	10/6(주일) 14시~18시	서울정릉본원강당	010-4096-5973



교회(1) :

“그분은 또한 당신 몸인 교회의 머리입니다.” (콜로 1,18)

왕태연 요셉 신부 | 신앙교육원 부원장

“교회(라틴어 Ecclesia는 그리스어 ek-kalein ‘밖으로 부르다’에서 나옴)라는 말은 ‘불러모임’을 뜻합니다.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성격을 지닌 백성의 집회를 가리킵니다. (...)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의 모든 극변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백성을 교회로 ‘불러모으십니다.’ Church(영어), kirche(독일어)의 어원인 그리스어 Kyriake는 ‘주님께 속한 모임’을 의미합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751항)

교회라는 용어의 어원에서 드러나 있듯이 교회는 하느님께서 “불러모으신” 공동체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오늘날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는 신앙생활이 개인의 기호에 따라 ‘선택’ 가능한 취미나 동아리 집단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교회는 그 본질상 하느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마음먹으신 그때부터 온전히 하느님의 뜻에 따라 준비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은 교회를 위해 창조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생명에 참여하도록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이 참여는 그리스도 안으로 사람들을 ‘불러모임’으로써 실현되는데, 이 ‘불러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760항)

따라서 교회의 역할과 사명은 매우 분명합니다. 교회는 그 기원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세상 모든 피조

물을 하느님의 사랑으로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불러모임”의 역사는 인간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역경을 겪기도 했지만, 하느님께서서는 세상 구원에 대한 의지를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 죽음으로 교회의 신비를 세상에 더욱 분명히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교회는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15)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풍요로운 성사(聖事)들을 비롯하여 세상의 여러 현상과 문제들에 대한 신앙적 해석과 가르침을 통해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일치와 조화를 위해 애쓰면서 구원의 신비를 알리고 전하는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주어진 사명을 수행하는 힘의 원천과 중심에는 하느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성장하도록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향해 자라도록 하시기 위하여 당신 몸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선물들과 서로 다른 봉사직을 주심으로 써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에서 서로 돕도록 하십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794항) ●